생명력 있는 힘의 예술

◇민예총과 꽃다지를 통해본 공안탄압과 예술의 본질

언론과 정치인의 공안탄압 많아
사회와 함께 성숙하는 예술의 고유성

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아이와 개구리의 우화로 단편적이나마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와 예술을 대입시킨다는 자체에 어폐가 있다.

그러나 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히 행해지는 요즘 한 보수적 정치인이 합법화된 예술단체를 빨갱이로 매도한 사건이 선뜻 이 우화를 생각케 한다.

8월26일 이화정에서 열린 우남 아카데미에서 주제발표후 박용만 민자당 고문은 "민예총(한국민족예술총연합의 준말)과 같은 공산당에 정부가 2억6천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 단체는 청와대 김정남 교문 수석밑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그 저의 역시 밝혀진 셈이다.

이는 재야출신이며 청와대내 정보세력인 김정남수석에 대해, 이미 제야인사영입과 관련한 색깔 논쟁을 야기시킨바 있는 박용만 고문의 의도적 발언이었다.

민예총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김정남 수석을 흠잡기위해 민예총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민중예술의 탄압이 민예총의 법인화이후로도 여전히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어디에서도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예술이 정치권의 내부다툼에 까지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월간조선 9월호에는 13페이지 분량의 '민예총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이란 글이 실려 결코 좌지않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월간조선과 최홍렬기자를 상대로 김남주시인의 미망인인 박광숙씨와 민예총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행정적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결렬되었다.

김남주 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재없이 3년전 잡지인 91년 민족예술 7월호의 내용을 자의적 요약하는 기사 전개방식 및 논조, 신동엽의 '금강'을 신경림의 '금강'으로 혼동하여 작가의 이름을 모르는 기자의 실수나 노래판 굿 '꽃다지'와 희망의 노래 '꽃다지'를 구분못하는 등 터무니 없는 오류도 여럿 눈에 띄었다.

노동운동이나 노동이론에 관한 기초지식이 전무한 기자의 비판은 너무나 허술하다.

민예총은 박용만고문 역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것 같은 민예총에게 있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뤄진 '노래판 굿 꽃다지 공연'이 목전에 다가왔다.

오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공연 6년의 역사의 '노래판 굿 꽃다지' 공연은 올초의 극단 현장의 (노동의 새벽), (민중미술15년전)등의 대형기획전과 올해 중반의 (다시서는 봄) 공연등의 민중예술의 제도권 진출의 연장선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노천에서 일제히 라이터불을 켜고 관객과 출연진이 어우러진 굿판의 모습에 익숙했던 꽃다지의 고정팬에게는 세종문화회관서의 공연이 어설플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세종문화회관 공연에 이들은 그 공간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래판 굿 꽃다지는 매년 노동자들의 최대 관심사를 주제로 선택한다.

89년의 주제는 전노협 건설, 90년은 전태일 열사 20주기 특별공연이었듯이 올해의 주제는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모여드세'이다.

올해에도 극단(현장), 희망의 노래 (꽃다지), 노래공장, 놀이패 (한두레)및 대우중공업 노래패 등 80여명이 참가한 대형행사이다.

1920년대 독일의 노동운동이 활발할때 나타난 피스카토르나 1960년대 미국의 반전운동이 있을때의 리빙시어터같은 획기적 연극인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한국에는 파업장이나 집회장의 첨예한 사안을 놓고 이를 예술화하여 공연하는 '노래판 굿 꽃다지'가 있다.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의 예술은 아무런 생명력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사가지카 오쯔로오란 일본 미술 평론가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힘있는 예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필요불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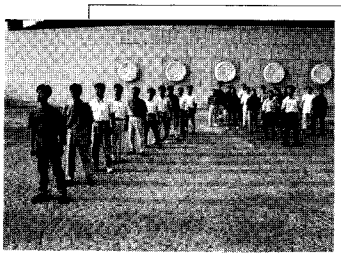
예술은 늘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기에 그 자체로는 힘이 있으며 감동을 하게도 하는 것이다.

일부언론은 지금의 사단법인 민예총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반공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좌경적인 단체인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어떠한 비판도 예술의 존엄성은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

예술은 권력의 노리개도 유럽의 중세시대처럼 종교의 시녀도 아니며 예술지상주의는 아닐지라도 예술의 고유성은 사회가 성숙할 수록 받아야 하며 그것이 민중예술이고 노동자예술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국의 19C 서민의 독창적 민화가 그 당시 양반사회의 중국 모방의 수묵화보다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경 記者〉



◇오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을 노래판굿 (꽃다지)의 연습 모습. 올해로 공연 6년을 맞이한 (꽃다지)와 그 기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뷰 꽃다지 연출 박인배씨

관객과의 벽 허문 연출

"어둡다는 것은 현지 위압적입니다. 객석 조명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끄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노래판굿 꽃다지 공연의 객석은 밝은 조명을 비추게 했습니다." 꽃다지 연출가 박인배(극단 현장 대표)씨는 밝음속에서 관객과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지난 6년간 다섯번씩이나 꽃다지 연출을 맡아온 그로서도 객석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의 꽃다지는 이제껏 단골무대였던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제도권의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 공연된다. 올해 여름 '다시 서는 봄'의 공연에 이은 민중문화의 또한번의 제도권 진출인 셈이다. 민중문화권의 제도권 진입은 많은 이들에게 호감과 반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박씨는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공연이 단순히 제도권에 흡수되는 것으로 단정짓지 말라"며 오히려 "제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정하는 것은 곧 노동자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없이 유지될 수 없는데 정부와 언론의 형태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 노동법 개정 등 노동계내의 문제들이 앞으로 꽃다지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는 박씨는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통일의 과제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소의 지론을 밝힌다.

〈庚〉

〈꽁트〉 K군의 어떤 면접날

K군은 지금 어느 대기업의 화장실에 있다. 물론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 때문은 아니다.

이류라고 하기도 그렇고 삼류라고 하기는 자존심 상하는 대학의 4학년인 K군은 지금 입사시험, 그것도 어렵사리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을 보기 위해 기다리다 갑자기 요의를 느낀 것이다.

이번이 다섯번째 입사시험이다.

먼저 세번은 서류전형에서, 한번은 면접에서 보기 좋게 떨어진 것이다.

선배들은 입사시험이 대학입학시험 보다 더 어렵다며 한손가락은 채워야 입사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송전탑(A)이 배불뚝이(B) 보다 많은 K군의 자존심은 지난 네번의 입사전형에서 보기좋게 구겨지고 말았다.

게다가 지난번 L그룹의 면접은 어떠했는가.

"K군, 음. 대학성적은 괜찮구만. 그 학교 점수가 상당히 후한 모양이군"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앉아있는 K군에게 한자루 비수를 꽂은 면접관은 시종 '고향이 어디냐, 본관이 어디냐, 누구의 몇대손이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군대는 어디를 갔다왔는가, 애인은 있는가'를 물어본 후 했다고 나가라고 했다.

하다못해 대학의 형식적인 입시 면접에서도 '이 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물어보는데…….

물론 그 회사의 합격자 명단에 군은 빠져있었다.

2주전의 일이다. 그날 군은 학교 발전계획이라고 발표는 해놓고 정작 해놓은 것은 없어서 입학한 이후 7년만에 학교 등급이 훨신 내려앉은 것을 비관하면서, 학교 당국자들을 싸그리 안주접시위에 올려놓고 생전 처음 술을 기억못할 정도로 마셨다. 결국 그날 K군은 길거리에서 자다가 시립 행려병자 수용소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봐야 했다.

'필기시험이라도 쳤으면…'

대학교 1학년때부터 새벽반 영어강좌를 듣고, 남들은 방학이라고 여행이다 캠핑이다 들떨 때에도 꼬박꼬박 학교에서 하는 영어강좌를 듣고, 도서관에서 신문·잡지를 탐독하고 책을 찾아보고, 심지어 모꼬지 갈때도 기차안에서 민박집에서 책을 본다고 핀잔을 받던 K군은 입사시험을 치르는 동안 대학이라는 곳에 대해, 학문,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K군은 오늘 면접도 그리 자신이 없었다.

대기하고 있는 응시자들의 얘기를 엿들자니 소위 명문대학 출신이 월등히 많고 자기와 비슷한 정도의 대학 출신은 엄마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K군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 많다고 하지만 도서관에서, 단과대학에서 마주치던 아는 얼굴이 없는 것을 보곤 K군은 다시금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저 명문대 중심의 선발을 안했다는, 공정한 실력과 인품을 보고 선발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K군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 같았다.

그렇게 자신의 면접순서만 기다리다 화장실에 온 것이다. 세면대 앞에선 K군은 손을 씻다 말고 거울을 쳐다보았다.

200Km행군을 마친 다음의 병사처럼 피곤에 지친 27세 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이번에도 그따위 질문이나 하면서 면접을 끝냈단 봐라. 면접관 얼굴이 남아나지 못할 거다'

화가나 벌떡 일어나는 K에게 면접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K의 바지부분을…

이번에 응시한 S사는 서류전형에 희망부서를 쓰게하고, 면접은 그 희망부서에서 보기로 했다. K군은 가장 지원이 많은 기획부서를 지원했고 그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다.

면접장 쪽이 술렁거린다 싶더니 K의 이름이 불려진다.

K는 눈썹을 휘날리며 면접장으로 들어갔다.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웃었지만, K는 신경쓰지 않았다.

"면접번호 XXX번, ○○○입니다."

K는 군대에서처럼, 아니 군대 신병때보다도 더 씩씩하게 인사를 했다. "앉게"

면접관 두명 중 나이들어 보이는 사람이 부드럽게 말했다.

'잘되려는 모양이군'

K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면접관 앞 의자에 앉았다. 작은 방에 3명.

그 두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으나 기분이 묘하다고 짧은 순간 K는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든 면접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심호흡하듯 푸어번 숨을 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K군은 아직 우리 회사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군. 미안하지만 좀더 준비한 다음에 와주게"

화가 나 벌떡 일어나려는 K에게 젊어보이는 면접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K의 바지부분을.

K의 바지에 잠기지 않은 지퍼 사이로 알록달록한 삼각팬티가 예쁘게 웃고 있었다.

이 대 근 〈국문·4〉

공연안내

□문의 : 744-7090

여행스케치 콘서트

89년 12월 결성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여행스케치가 가을콘서트를 개최한다.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목소리를 활용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려줄 이번 여행스케치 공연은 1집 별이 진다네, 2집 추억여행—새벽에서 끝까지 등 다수의 노래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3일(평일 : 오후7시 30분, 토·일·공휴일 : 오후3시, 6시)대학로 학전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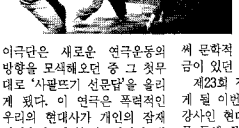
□문의 : 763-8233

연우, '사팔뜨기…'공연

극단 연우무대가 36회 정기공연으로 '사팔뜨기 선문답'(윤영선 구성·연출)을 공연한다.

우리, '풍금…'공연

극단 우리극장에서는 소설로 어둡고 표현되고 있다는 동의 새로운 한국 사팔뜨기 선문답 연극운동의 방향을 모색해오던 중 그 첫무대로 '사팔뜨기 선문답'을 올리게 됐다. 이 연극은 폭력적인 우리의 현대사가 개인의 잠재의식속에 심어놓은 세계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들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신체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사팔뜨기 선문답'은 새로운 무대언어로 깊이 있는 연극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부터 10월9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



◇극단 연우의 연극 이름은 이극단은 새로운 연극운동의 방향을 모색해오던 중 그 첫무대로 '사팔뜨기 선문답'을 올리게 됐다. 이 연극은 폭력적인 우리의 현대사가 개인의 잠재의식속에 심어놓은 세계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들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신체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사팔뜨기 선문답'은 새로운 무대언어로 깊이 있는 연극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부터 10월9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

제23회 정기공연으로 올려지게 될 이번 연극에는 에어로빅 강사인 현대여성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참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내용으로 고급섹서가 연출하고, 정수진, 마영등이 출연한다.

지난22일부터 오는 10월30일(평일은 4시, 7시30분, 토·일·공휴일은 3시, 6시30분) 대학로 세미예술극장.

창간 4주년을 맞아 내용과 맵시가 확 달라진 혁신호를 냈다.

한국의 대학 총장이 특집이다. 「지성과 패기」

신경그룹이 조선일보와 함께 마련하는 대학 연극인들의 신선한 경연장.

94년 10월에 본선이 펼쳐진다.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한 전국 대학(원)생들의 논문 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선경이 펼치는 대학의 문화 마당—
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학 문화, 그 커다란 의미를 늘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동안 우리의 대학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가요제와 대동제 탈춤판을 두루 즐길 줄 알고 옛것과 새것을 고루 누리는 다양성이 있으며 개성주의와 공동체론의 공존, 그런 것이 오히려 특징인 듯합니다.

대학 문화가 다양한 만큼 대학 문화를 보는 시각도 여러 갈래이겠지요.
그 중의 하나일 선경의 생각, 선경이 펼친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학을 생각하고 대학인의 생각을 담는 잡지 「지성과 패기」,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인들이 꾸미는 창의의 무대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시대를 대비하는 논문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지금 선경이 펼쳐 놓은 작은 마당입니다.
물론 선경이 맡아야 할 몫이 이밖에 더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선경의 생각을 한뼘 한뼘 키워가겠습니다.

SUNKYONG
鮮京그룹